

정의란 무엇인가?

5 장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관대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User : 이 문수

대서울교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는 데는 동기가 필요하다

-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 은혜를 맛본 것이다. 그 경험이,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라는 윤리적 명령을 접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여인의 마음가짐과 동기를 바꿔 놓았다. 바로 그것이 제 5장에 다루려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 대다수 현대인들은 올바른 행동이 무언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데서 고장의 원인을 찾는다.
- 성경은 공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내면의 힘과 활력을 공급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중한 자원을 볼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두 가지 기초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담긴 선량함 앞에서 떨며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속의 역사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다.

인간,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 창조를 믿지 않으면, 인간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접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배어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하나 다 신성하며 인간은 저마다 존엄성을 지녔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순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 것이다.
-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을 고귀하게 대접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인류의 주인이신 창조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영상과 시민권

-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로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인간의 존엄성은 일정한 능력, 특히 이성적인 사고력에서 비롯된다는 게 그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공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궁핍한 이들을 섬기며, 형평이 어려운 이웃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데 으뜸가는 동기다. 아울러 주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세

- 정의로운 이들은 재물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인간 공동체 전체의 소유라고 보지만, 불의하고 부정한 이들은 동전 한 푼까지도 남이 아닌 제 것이라고 완고하게 고집한다.

□토지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지주들이 일시적으로 맡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농부의 땅을 요구할 권리는 없었지만 적어도 거기서 난 생산물 중 얼마만큼을 가질 자격은 충분했다. 따라서 지주가 제 몫을 줄여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밭에 나가 일해 먹고 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저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권리를 빼앗은 셈이 된다.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하다는 건, 모든 재물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재화와 기회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인색'이 아니라 '불의'다.

공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 양식

□공의를 행하는 핵심 동기로 창조 섭리만큼이나 자주 거론되는 것은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려는 의지를 내면에 품는다는 뜻이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처사는, 좋게 얘기해야 스스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다.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한다.

□속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독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말 주님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제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순종일 따름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열심히 종교의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심령이 사망 상태에 이르면, 사랑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 특히 가난한 이들의 따뜻하게 보살피려는 의지는 실종된다.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았다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바울과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한데 묶는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도 믿음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늘 변화된 삶을 낳았다."

'행함'이란 무얼 말하는 것일까?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 아낌없이 쏟아 붓는 삶이야말로 진실하고 참되며, 복음적인 믿음에 반드시 뒤따르는 표적이라는 게 야고보의 설명이다.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한다. 정의롭지 않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게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개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나치게 '낮은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법은 한없이 광대하고, 의로우며, 부담이 커서 절대로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교리를 굳게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법과 공의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서 높이 존중받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자세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주님이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기도하기가 무섭게 응답해 주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영적인 중산층'의 사고방식 한마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크리스천은 가난한 이들을 볼 때마다 거울 앞에 선 느낌이 든다는 뜻이다. 우월감이나 쌀쌀함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냉큼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편지 후반부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너그럽게 소유를 나누는 행동이야말로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결정적 증표라고 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 실질적인 관심을 품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이신칭의가 죽은 교리라고? 천만의 말씀!

□복음은 부유한 이들의 정체감을 변화시켜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새로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만든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르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아상도 바꿔 놓는다.

□세상이 만고의 진리로 여기는 '성취'의 법칙에 따라 '불의'하다는 선고를 받은 이들이, 순전히 은혜로 의로워지기를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선포하고 구현해 내려는 메시지를, 정치 경제 제도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문화 속에 주입하기로 작정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게 바로 은혜로 의로워지는 원리가 선포되고 실행되는 모습이다. 죽은 교리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버튼을 누르세요!”

□진실한 크리스천이 분명한데도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많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일단, 세상과 똑 같은 방법, 즉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회의식을 불어넣으려 했던 게 실책이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향한 정의를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와 연결한다면, 크리스천들의 심령 깊이에 내장된 '단추를 누르고' 잠자던 감각을 일깨우는 사건이 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2016 '로고스를 입다'

5 장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User : 이 문수

대서울교회

2016 '로고스를 입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접근법>

1. 공리주의 :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법
2.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접근법
3.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배분해야 한다는 접근법

칸트 철학 이마누엘 칸트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함 ”

공리주의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여긴 이유

- 도덕의 생각방식부터 그릇됨
- 기호나 욕구가 도덕원칙의 바탕이 되면 도덕의 진실이 왜곡됨
- 행복하다는 것과 선한 것과는 별개사안임
- 인간을 전체 복지의 수단으로 여김

도덕의 기준 : ' 순수 실천이성 ' 을 훈련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 가능함

세 가지 중요개념에 대한 연관성과 관련된 대조 용어
대조 1(도덕) : 의무 vs. 경향성(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주요기준)
대조 2(자유) : 자율 vs. 타율
대조 3(이성) : 정언 명령 vs 가언 명령
대조 4(관점) : 예지적 영역 vs. 감각적 영역

도덕이란 무엇인가? (행동의 도덕적 가치)

- 1) 의무 동기 :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로 옳은 이유만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
- 2) 경향성 동기 : 도덕적 가치가 결여된 것으로 자기의 이익, 욕구, 식욕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

타산적인 가게 주인과 '거래개선협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

도덕적인 인간 혐오자

철자 맞히기 대회 영웅

자유란 무엇인가? (내 의지가 결정되는 양식)

- 엄격하고 까다로운 개념 - 자율적 행동을 의미함
- 자율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자체의 목적이 되기때문에 자유는 매우 중요

진정한 자유란? :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이 아닌 내 스스로 부여하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람과 사물이 다른 이유 :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의 도구가 아닌 자율적인 행동의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님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 : 도구로서가 아닌 어떤 경험적 목적에 상관없이 선형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

이성의 작동 방식

- 1) 정언 명령 :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과 조화되는 의지에 필요한 명령
- 2) 가언 명령 :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한 명령

<정언 명령의 몇 가지 형태 또는 공식>

- 정언명령 1 : 당신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정언 명령 2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예지적 영역 vs 감각적 영역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을 바라보는 시각)

- 1) 예지적 영역 : 이성적 존재로서의 영역임. 여기서는 자연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율권 행사, 스스로 부여하나 법칙에 따른 행동이 가능
 - 2) 감각 세계. 자연법칙(물리적, 생물학적) 및 원인과 결과라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결정 (과학이 도덕적 물음에 답하기는 불가함)
- *두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으나 자연법칙이나 필연성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의지의 자율과 예외없이 일치할 것이다.

칸트가 생각한 도덕과 자유의 관계

- 칸트의 자유와 도덕의 엄격한 개념은 일맥상통
- 자유로운 행동, 즉 자율적인 행동이란 도덕적인 행동, 즉 정언 명령에 따른 행동과 동일한 하나의 개념.

칸트 철학에 대한 질의 응답

칸트 철학의 적용: 섹스 거짓말, 정치

도덕(道德)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정의(正義)란? ①진리(眞理)에 맞는 올바른 도리(道理) ②바른 뜻 ③바른 의리(義理)

현대 철학자 중에서 정의론을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은 철학자인 롤스이다. 그는 정의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 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1원칙).
- ②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원칙).

칸트의 권리 옹호

- 우리는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우리 목숨과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기반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기에 존중 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다.
-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는 커다란 질문을 제시한다. 도덕의 최고 원칙을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또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진다. 자유란 무엇인가?
-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소개했다.
 - 1) 공리주의 접근법 :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2)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접근법 :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련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 3) 정의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 즉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화를 배분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 칸트는 첫 번째 접근법(복지 극대화)과 세 번째 접근법(미덕 장려)을 거부한다. 둘 중 어느 것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는 두 번째 접근법을 강력히 지지한다.
- 우리가 흔히 시장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칸트는 주장한다. 그런 자유에는 우리가 애초에 선택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칸트가 지적인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 칸트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 것은 도덕 원칙을 기호나 욕구(행복의 욕구도 마찬가지)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도덕의 진실을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공리주의의 행복 원칙은 “도덕성 확립에 어떤 식으로든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하게 만드는 것과는 다르며, 이익 추구에 신중하거나 영악하게 만드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 칸트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져 우리는 특별한 존재,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가 된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단지 욕구만 느끼는 동물이 아닌, 그 이상이 된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 칸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든다면, 이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오직 식욕과 기타 욕구의 노예로 행동할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배고픔을 채우려고 이 길로 가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저 길로 간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이 다른 이유

□뭔가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또 다른 뭔가를 위해 저런 행동을 한다. 타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에 반응해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때 우리는 추구하는 목적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다. 칸트가 말하는 자율은 이와 정반대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스스로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다. 인간을 전체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 보는 공리주의가 옳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살펴라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며, 도덕적 가치가 있는 동기는 특별한 종류의 동기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면에 숨은 다른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는 '의무 동기'인데 칸트에 따르면 이는 옳은 이유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람, 욕구, 기호, 식욕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도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칸트는 이러한 동기를 '경향성 동기'라고 명명해 '의무 동기'와 대조한다.

타산적인 가게 주인과 '거래개선협회'

□아이와 정직하게 거래한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이므로, 그의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

□매수된 정직은 도덕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주님의 법은 한없이 광대하고, 의로우며, 부담이 커서 절대로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

□사람들은 대개 살려고 하는 강한 경향성이 있게 마련이며, 의무가 개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조심하는 행동에는 도덕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

□칸트도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인정했다. 의무 동기와 경향성 동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한다.

도덕적인 인간 혐오자

- 칸트의 견해로는 동정심에서 나온 선행은 “아무리 옳고 친절해도”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
- 분명히 동정심에서 우러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남을 돕는 이러한 동기와 의무 동기를 구별한다.
- 이타주의자의 동정은 “찬사와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 쾌락을 느끼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옳은 행동이라는 이유로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칸트는 말한다.

철자 맞추기 대회 영웅

- 추접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물론 경향성이다. 따라서 그것이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한 동기였다면, 그런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 도덕이 의무로 행동하는 것이라면, 어떤 의무가 필요한지 밝히는 일이 남는다. 칸트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곧 도덕의 최고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 대조1(도덕): 의무 vs. 경향성
 - 대조2(자유): 자율 vs. 타율
 - 대조3(이성): 정언 명령 vs. 가언 명령
- 두 번째 대조는 내 의지가 결정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자율과 타율)을 설명한다.
- 자유가 내 욕구와 경향성을 따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가능할까? 내게 동기 부여되는 모든 것은 외부 영향으로 결정되는 욕구나 경향성에 의한 것 아닌가?
-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선천적으로 주어지거나 외부에서 부여된 법칙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법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칸트는 이성이라고 답한다.
- 만약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결정한다면, 그 의지는 자연이나 경향성의 명령에 지배되지 않는 독립적인 선택의 힘이 될 수 있다.
-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과 관련된 실천 이성은 도구가 아니라 “어떤 경험적 목적에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이다.

정언 명령 vs. 가언 명령

□그런데 이성是怎么 작동할까?

- 항상 조건이 붙는 가언 명령과 조건없는 명령인 정언 명령을 대조한다. 칸트는 이렇게 썼다.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하다면, 이를 지시하는 명령은 가언 명령이다. 한편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과 조화되는 의지에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 명령이다.”
- 정언 명령은 무엇이며, 정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칸트는 “다른 어떤 동기도 없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실천 법칙”

정언 명령1: 당신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칸트가 말하는 ‘의지의 준칙’은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칙이나 원칙을 뜻한다. 그의 말은 궁극적으로 모순 없이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언 명령2: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 그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도덕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도덕법은 사람, 즉 자체가 목적인 사람에게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 존재만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뭘까? 칸트의 답은 인간이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한다.”
- 칸트에 따르면, 상대가 어디에 살든, 자신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켜 줄 때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그가 인간이고, 이성적 존재이며, 따라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생각한 도덕과 자유의 관계

□도덕과 자유의 관계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즉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본성과 환경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법칙은 특정 욕구나 바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칸트의 자유와 도덕의 엄격한 개념은 일맥상통한다. 자유로운 행동, 즉 자율적인 행동이란 도덕적인 행동, 즉 정언 명령에 따른 행동과 동일한 하나의 개념이다.

칸트 철학에 대한 질의응답

□질문1: 성경의 ‘황금률’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과 같은 말인가?

대답: 아니다. 황금률은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가’라는 상황적 요소에 의존한다. 정언 명령은

그러한 상황에서 탈피해,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욕구나 바람과 상관없이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존중 하라는 것이다.

□질문2: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법칙을 지킨다는 의미인데, 법칙에 대한 복종이 어떻게 자유와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답: 의무와 자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을 본인 스스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함께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종속된다는 조건하에서이긴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그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능력에 있다."

□질문3: 자율이 자기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 같은 도덕법을 선택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정언 명령이 자기 의지의 산물이라면, 서로 다르지 않을까?

대답: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을 발휘할 때 특정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누구나 순수 실천 이성을 발휘한다면, 동일한 결론(유일하고 보편적인 정언 명령)에 이른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유 의지와 도덕법에 따르려는 의지는 같으며 하나다."

□질문4: 도덕이 권력과 이익의 추구와 별개로 존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자유 의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대답: 의지의 자유는 과학이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도덕도 그러하다. 칸트는 우리 자신을 두 가지 관점(물리와 생물이라는 경험 영역과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라는 '예지적' 영역)에서 동시에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추가된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을 바라보는 시각

대조1(도덕): 의무 vs. 경향성

대조2(자유): 자율 vs. 타율

대조3(이성): 정언 명령 vs. 가언 명령

대조4(관점): 예지적 영역 vs. 감각적 영역

□자연 존재로서 나는 감각 세계에 속해 있다. 내 행동은 자연법칙 및 원인과 결과라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결정된다. 이는 물리, 생물, 신경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인간 행동의 한 측면이다. 한편 이성적 존재로서의 나는 예지적 세계에 살고 있다. 여기서는 자연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른 행동이 가능하다.

섹스, 거짓말, 정치

□칸트의 도덕 철학을 탐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구체적인 사례에 도덕 철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한 칸트의 견해

□서로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로운 성관계(이 경우에 그는 혼외정사를 의미)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두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둘 다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성관계는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뿐 상대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칸트는 반대한다.

□칸트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에 관한 그의 견해는 오늘날의 논쟁에서 곧잘 혼동되는 두 개념(규제받지 않는 합의의 윤리, 그리고 자율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윤리)의 차이점을 확실히 보여준다.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잘못일까?

□칸트는 거짓말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거짓말을 부도덕한 행위의 최고 사례로 꼽는다.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위 아닐까? 칸트는 아니라고 말한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

□칸트는 살인자에게 거짓말하는 행위가 잘못된 이유는 살인자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진실이지만 상대를 오도할 수 있는 발언은 정언 명령을 위협하지 않는다. 실제로 칸트 자신도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 차이에 의존한 적이 있다.

칸트라면 빌 클린턴을 변호했을까?

□꿈수 아닌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중요한 뉘고는 명백한 거짓말이나, 교묘한 회피나 의 차이에 달렸을 때가 많다.

□“그가 거짓말을 했는가?”에 대한 이들의 격렬한 논쟁은 거짓말과 남을 오도할 수 있는 진실 사이에는 도덕적 차이가 있다는 칸트의 사고방식을 지지한다.

□칸트의 도덕 이론에 따르면, 엄밀히 말해 진실이지만 오도할 수 있는 발언(문 앞의 살인자에게든, 프로이센의 검열관에게든, 검사에게든)을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과 달리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

고 결론지을 근거가 있다.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

□“어느 누구도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행복하도록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각자 어울리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권리를 사회 계약에서, 다소 변형된 사회 계약에서 도출한다는 것이다.